

## [ 종합·해설 ]

##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로 이끌자

## ⑤ 국민 열기 결집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의 원동력이 전 국민적인 열기에서 나온다는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정부와 전남도·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기업과 민간단체가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합심으로 끊겼기 때문에 강력한 라이벌인 모로코를 결선투표에서 물리칠 수 있었다.

정치권 특별법 머리 맞대고  
국민은 봄 조성 적극 참여를

이제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범국민적 열망을 다시 한 번 모으는 일이 절실히졌다.

먼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여수엑스포 추진 과정에 사회 모든 영역의 문호를 개방,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자는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직능 대표가 조직위에 참여해 먼저 자체적인 엑스포 봄을 일으켜야 비로소 대규모 국제행사인 세계 박람회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과제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 구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인 특별법 제정에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 특별법 내년 2월 상정

해양수산부는 여수엑스포를 지원할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가칭)'을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월드컵, 올림픽 같은 국제행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하는 게 상례인 만큼 이미 초안을 작성해 특별법을 17대 국회 내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2008년 2월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엑스포의 준비기간이 4년 반밖에 남아 특별법 제정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는 19일의 17대 대선, 2008년 4월 18일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에 눈이 끌어 법 제정에 등을 돌리면 심각한 차질도 우려된다. 따라서 국익차원에서 치러지는 여수엑스포의 당

〈끝〉  
/박지경기자 unipark@

## 대선 D-15 각 후보·캠프 광주·전남 유세전



광교육 활성화를 촉구하는 학부모모임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역 지식인 747인은 3일 오후 한나라당 광주시당 2층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유세중 시민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위진경기자 jrwi@kwangju.co.kr

## “한나라 집권 막아달라” “경제 대통령 뽐아달라”

민주당 이인제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1주일째인 3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 지역선 대위도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아파트단지나 상가를 돌며 표심 잡기 경쟁을 벌였다.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선대위는 지병문·김동철 의원과 고재우 전 광주시장이 연설원으로 나서 봉선동 라인시장과 광산구 송정시장 등지에서 정동영 후보 지원유세를 펼쳤다. 양형일 광주선대위 상임위원장은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정 후보 지원유세에서 개혁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개혁 진영 후보 단일화 촉구

또 ‘광교육 활성화를 촉구하는 7천인 학부모 모임’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동영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회견을 갖고 ▲무상교육 고교까지 확대 ▲우수 공립고 육성 및 대학경쟁 강화 ▲영어교육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했다.

정동영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4일 나주혁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 ‘광주·전남 지역개발 공약’을,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광주성명’을 각각 발표한 뒤 광주공원에서 유세를 갖는 등 광주·전남 집중 공략으로 역전의 발판 마련을 꾀한다.

○·한나라당 광주·전남선대위도 광주 송정시장과 삼무지구, 화순읍, 능주 등지에서 각각 유세를 벌이며 이명박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김채구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서자현 호남대 초빙교

수 등 광주·전남 지식인 747명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에서 “실천하는 지도자임이 겸증된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뽐아 지역 경제발전에 대도약을 이루자”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4일에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김덕룡 의원, 유준상 고문 등이 목포와 장흥, 순천, 여수 등지에서 지원유세를 펼친다.

○·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전남, 2일 전북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데 이어 이날은 광주시내 중심가와 재래시장 등을 순회하며 사흘째 호남 민심 깨닫기에 공을 들였다.

## “범여 후보 단일화 실패 신당이 책임져야”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민주당은 힘들고 어렵지만 역사와 정의를 책임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과 내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단일화라는 큰 결심을 했으나 신당내 분열세력이 망가뜨려버렸다’며 ‘신당은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신당에게) 통합 과정에 대한 반성과 노선수정 등 진지한 자세로 결단을 할 수 있는가 먼저 물어야”면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통합이나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라당에게 그냥 정권을 주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호남을 제외하고 100% 한나라당이 약장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중앙정권이 넘어가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면 호남이 고립된다”면서 “광주에서 위대한 후보인 저에게로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 선거혁명을 일으켜 민주당에 새 생명, 새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유세에는 박상천 대표와 최경주 광주시당위원장, 박주선 광주선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도 이날 광주를 방문해 IMF 이후 10년간의 양극화 문제를 파고들면서 서민 표심 끌어안기에 공을 들였다. 권 후보는 이날 강기수 광주선대위 상임위원장 등 지역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송정리시장과 양동시장을 돌며 ‘서민 경제를 위한 유일한 후보’라는 메시지 전파에 주력했다.

## “유일한 서민 후보에 마음을 모아 달라”

권 후보는 유세에서 “10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와 IMF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날로 서민과 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세월이 시작된 날이었다”면서 “IMF를 불러온 수구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이야기하고 IMF 이후 10년동안 집권해 온 무능 보수세력들은 ‘다시찾은 10년’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서민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며 한나라당과 범여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정몽준 의원이 이명박 후보 지지를 선언, 현대 출신들이 통치고 재벌들이 통치고 있다”며 “이제 서민들은 서민의 후보인 저에게로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무소속 이희창 후보 광주·전남선대위도 유세 차량 7대를 동원, 지역 곳곳을 돌며 후보 알리기에 나섰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이 후보가 호남을 방문,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이명박 1위 고수속 부동층 증가 일부 조사率 지지율 20%대 떨어지기도

선거일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보도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초반 1위 독주 판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감소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BBK 관련 검찰의 수사 발표를 앞두고 부동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지 후보를 한 차례 질문한 일부 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

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5일째로 예상되는 검

찰 수사 발표가 대선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줬다.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센터(KRC)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3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율은 이명박 후보가 35.7%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이희창 후보 17.6%,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12.6%,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5.4%,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2.8%의 순이었다.

조선일보가 지난 1일 TNS코리아와 함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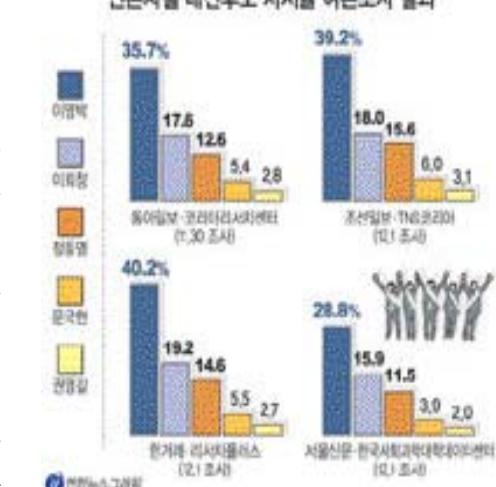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명박 후보 39.2%, 이희창 후보 18.0%, 정동영 후보 15.6%, 문국현 후보 6.0%, 권영길 후보 3.1%

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가 30% 중·후반대를 보인 이를 조사와는 달리 서울신문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조사한 결과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28.8%로 지난달 17일 같은 기관의 조사보다 7.9% 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언론사별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계보청기 - 세기보청기

1588-5555 1588-5555 1588-5555 1588-5555

www.sesiboseung.com